

2025학년도 수시모집  
**모의논술고사 시험문제**

고교명	
성명	



글로벌 평화 리더 양성 ———  
**한신대학교**



# 논술전형 안내

## 1. 특징

- 한신대학교 논술고사는 별도의 사교육 없이도 준비가 가능한 문제로 구성되어 평소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성실하게 준비한 학생이라면 부담없이 도전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 학교 수업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도록 **쉬운 논술, 약식 논술 형태로 출제**되어 여타 논술고사와는 다른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 2. 출제방향

- EBS수능특강, 수능완성 등의 EBS 수능 연계 교재가 중심이 되고 학교 정기고사의 서술·논술형 문항 난이도로 출제될 예정입니다.

## 3. 평가방법

구분	반영비율	영역별 문항수		배점	고사시간	총점	답안형식
		국어	수학				
인문계열	60%	9	6	각 문항 8점	80분	120점+480점(기본점수) = 총 600점	노트 형식의 답안 작성
자연계열	60%	6	9				

## 4. 출제범위 및 평가기준

구분	출제범위	평가기준
국어	문학, 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시문의 핵심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li> <li>■ 문항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충실한 서술</li> </ul>
수학	수학 I, 수학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에 필요한 개념과 원리에 대한 정확한 서술</li> <li>■ 정확한 용어, 기호를 사용한 표현</li> </ul>

## 5.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인문	자유전공학부	25	인문	IT경영학	7
	영미문화학	8		글로벌비즈니스학	8
	문예창작학	10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	10
	한국어문학	8		사회복지학	8
	한국사학	10		재활상담학	8
	중국어문화콘텐츠학	7		심리·아동학	10
	디지털영상문화콘텐츠학	4	자연	금융공학	10
	일본학	8		빅데이터융합학	10
	경제금융학	8		AI·SW학	80
	공공인재빅데이터융합학	10		AI시스템반도체학	8
	경영학	8	합계		265

# 국어영역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동양의 전통적인 역사 편찬 관행은 한 왕조가 멸망하면 다음에 세워진 왕조가 이전 왕조의 역사를 편찬하는 것이었다. 중국에서는 이런 관행이 일찍부터 이루어졌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고려 제4대 왕인 광종대에 이러한 역사 편찬 관행에 따라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역사서가 편찬되었다. 이 역사서를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구별하기 위해 『구삼국사』라고 부른다. 『삼국사기』는 고려 제17대 왕이었던 인종이 김부식에게 삼국 시대의 역사를 다시 편찬하게 해서 만들어진 역사서이다. 김부식은 『구삼국사』를 기본 자료로 삼고, 중국 측 자료와 국내의 새로운 자료로 내용을 보완하여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김부식이 기존의 역사서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역사서를 편찬한 것은 고려의 대내외적 상황과 연관 지어 이해해 볼 수 있다.

대외적 상황으로는 중국 송나라에서 『신당서(新唐書)』가 편찬된 것이다. 이 역사서는 역사 편찬 관행에 따라 편찬된 역사서인 『구당서(舊唐書)』를 새로 편찬한 것이었는데,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되어 『삼국사기』 편찬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특히 『신당서』는 고문(古文)체로 서술되어, 사륙변려문체로 서술되었던 기존의 역사서와는 차이가 있었다. 공자와 맹자가 쓴 문체인 고문체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글자의 중복 사용을 엄격히 피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내용을 서술하기에 적합하며 문장이 간결했다. 사륙변려문체는 문장이 장중하고 화려했다. 김부식은 당, 송 대에 일어난 고문체 부활 운동의 풍조에 따라 고문체의 수용을 주장했다. 역사의 기록도 고문체의 문장으로 서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인종에게 바치면서 올린 「진삼국사기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그는 『구삼국사』로 추정되는 『고기』의 기록이 거칠고 졸렬하다고 하여 『고기』의 문체가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삼국사기』가 고문체로 서술된 것은 문체에 대한 그의 생각과 지적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내적 상황으로는 고려의 정치 체제와 정치적 상황이다. 고려는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왕을 정점으로 하는 통치체제를 구축하고 유지해왔다. 하지만 인종 재위 기간에 왕위를 찬탈하려는 이자겸의 난으로 정치 기강은 어지러워졌고, 풍수지리설에 의거하여 서경 천도를 주장했던 묘청 세력과 이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 간의 다툼으로 묘청의 난까지 일어나면서 고려의 정치 체제가 흔들렸다. 이 두 개의 정변을 경험한 김부식을 합리적이면서 도덕성을 추구하는 유교적 역사관에 바탕을 두고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유교적 역사관의 합리적 성격은 증거문헌에 의거하여 사실적으로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며 신화적 요소들을 배제하는 탈신화성을 추구하는 것이고, 도덕적 성격은 역사적 사실을 통해 인의예지와 같은 유교적 윤리와 교훈을 얻는 것이었다. 결국 『삼국사기』의 편찬은 고려의 정치 체제를 유교 사상에 따라 다시 정비하여 당대의 정치 체제가 유지되기를 의도한 것이었다.

『삼국사기』 편찬에 대한 그의 의도는 사론(史論)과, 자연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이나 가뭄과 같은 재이에 대한 기록에서 엿볼 수 있다. 사론은 특정 사실에 대한 편찬자의 적극적인 가치 평가가 담겨 있는 글로, 『삼국사기』에는 왕에 관한 정치 일반을 다루는 기록인 본기(本紀)와 삼국그이 왕을 제외한 인물들에 대한 기록인 열전(列傳) 속에 있다. 『삼국사기』의 사론은 유교 경전에 준거하여 실천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권계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재이에 대한 기록은 천문지나 오행지에 별도로 정리한 중국의 경우와 달리 『삼국사기』 본기에 담겨 있다. 본기에 재이가 기록된 것은 김부식이 유교 사상의 여러 입장 중 천인감응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이다. 천인감응설은 기루 등 자연 현상을 포함한 하늘과 인가 사회의 일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이러한 점에서 군주의 올바르지 않은 행위에 따라 하늘은 재이를 통해 경고한다고 본다. 따라서 『삼국사기』 편찬의 정치적 의도를 고려하면 김부식에게 재이는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

김부식은 「진삼국사기표」에서 인종 대의 지식인 계층이 중국 역사에는 해박한 삼국의 역사에 대해서는 그 전말을 알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삼국사기』 편찬은 이런 당대 지식인들에게 삼국의 역사를 읽도록 만들었다. 『삼국사기』를 읽은 지식인 중에는 『삼국사기』의 사료 수집이 주로 관청이나 정부의 자료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사료 수집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이규보와 같이 삼국의 역사를 재인식하는 사람도 생겨났다. 이로 인해 『삼국사기』 이후에 편찬된 역사서는 『삼국사기』가 마련한 역사 인식의 바탕 위에서 그것을 보완하거나 극복하려는 내용으로 기술되었다.

1. 『삼국사기』의 문체가 지니는 특징이 무엇인지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2. <보기>의 내용과 대비되는 김부식의 사관은 무엇인지 두 어절로 쓰시오.

〈보 기〉

이규보는 「동명왕편 서」에서 “동명왕의 일은 변화의 신이함으로 여러 사람의 눈을 현혹한 것이 아니고 나라를 창시한 신성한 사적이니, 이를 기술하지 않으면 후인들이 장차 어떻게 보겠는가.”라고 했으며 동명왕 이야기를 ‘성(聖)’이며 ‘신(神)’이라고 했다. 이는 신화에 나오는 신화적 요소 안에는 거룩함과 신령함이 있기 때문에 신화를 세상에 전해야 하는 역사로 인식해야 한다는 이규보의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전략 ……

“저녁거리가 없지?”

범수는 할 수 없으면 양복이라도 잡혀야겠어서 떼어 입고 나가기를 주저하는 것이다.

“변연한 속이지 물어서는 무얼 하우?”

영주는 풀 죽은 대답을 한다.

“그럼 저 양복이라두 잡혀 오구려.” / “그것마저 잡히구 어떡할라구 그러우?”

“그리 긴하게 양복을 입구 출입을 할 일은 무엇 있나?”

영주는 그래도 느긋한 희망을 지니고 있었다. 남편이 몇 군데 이력서를 보내 두었으니 그런 데서 갑자기 오라는 기별이 올지도 모르는 터에 양복을 잡혀 버리면 일껏 된 취직도 낭패가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또 남편이 밖에 나가 있는 동안만은 행여 무슨 반가운 소식이나 가지고 돌아오나 해서 한심한 기대를 하는 터였었다.

“천하 없어두 그건 안 잡혀요.”

“거참 패사스런 성미도 다 보겠네!” / 하고 범수는 더 우기려 하지 아니했다.

“정말 큰일 났수! 하두 막막한 때는 죽어 바리기라두 하구 싶지만 자식들을 생각하면 그럴 수두 없구…… 글썄 왜 학교는 안 보내려 드우? 구리는 이 지경이 되었으니 자식이나 잘 가르켜야지?”

영주는 아이들이 생각나자 가슴을 찢고 싶게 보풀증이 나는 것이다. 범수와 영주 사이에 제일 큰 갈등은 아이들의 교육문제인 것이다.

영주는 아이들을 공부를 시켜서 장래의 희망을 거기다 붙이자는 것이다. 그는 하다 못하면 자기가 몸뚱이를 팔아서라도 아이들의 뒤는 댄다고 하고 또 그의 악지로 그만 짓을 못할 것도 아니었었다.

그러나 범수는 듣지 아니했다. 선불리 공부를 시켰자 허리 부러진 말처럼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반거충이가 될 것이요. 그러니 그것이 아이들 자신 장래에 불행하게 할 뿐 아니라, 따라서 부모의 기쁨도 되지 아니한다고 내내 우겨왔던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보통학교의 교과서 같은 것을 참고해 가며 산술이니 일어니 또 간단한 지리 역사니를 우선 가르치고 있었다.

그러나 영주가 보기에는 그것이 도무지 시원찮고 미답지가 못했다.

범수는 아내에게 너무도 번번이 듣는 푸념이라 그 대답을 또다시 되풀이하기가 성가시어 아무 말도 아니하려 했으나 아내는 오늘도 기어코 요정을 낼 듯이 기승을 부리려 든다.

“글썄 여보! 당신은 당신이 희망하는 일이나 있어서 그런다구 나는 어찌라구 그리우?”

“넌들 희망을 따루 가지구 그리는 건 아니래두 그래! 자식들이 장래에 잘되어 잘살게 하자는 생각은 임자허구 꼭 같지만 단지 내가 골라낸 방법이 옳으니까 그러는 거지…….”

“나는 그 말 믿을 수 없어…… 공부 못한 놈이 막벌이 노동자나 되어 남의 하шина 받지 잘될 게 어데 있드람!”

“그건 이십 년 전 사람이 하든 소리야. 변연히 눈앞에 실증을 보면서 그래?”

“무어가 실증이란 말이요?”

“허! 그것참…… 여보 임자도 여자 고보를 마쳤지? 나도 명색 대학을 마쳤지? 그런데 시방 우리 둘이 살아가는 꼴을 좀 보지 못해?”

“그거야 공부한 게 잘못이요? 당신 잘못이지…….”

“세상 탓이야…….”

“이런 세상에서두 남은 제가꿈 공부를 해 가지구 잘들 살어갑디다.”

“그건 우연이고 인제 세상은 갈수록 우리 같은 인간이 못살게 돼요…… 내 마침 생각이 났으니 비유를 하나 허께 들어 불려우?”

“듣기 싫여요.”

영주는 말로는 언제든지 남편을 못 당하는지라 또 무슨 묘한 소리를 해서 울가미를 씌우나 싶어 툭 꼬아 버렸다.

“하따 그러지 말구 들어 보아요…… 자, 시방 내가 돈이 ㉠일 원이 있다구 험시다. 그런데 드놈 돈을 어

땡게 건사하기가 만만찮거든…… 돈을 놓을 것이 없단 말이야, 알겠수?”

“말해요.”

“그래 척 상점에 가서 일 원짜리 ㉠돈지갑을 사잖았수?”

“일 원밖에 없는데 일 원짜리 지갑을 사?”

영주는 유도를 박아 무심코 이렇게 대꾸를 하난.

“거봐! 글썸…….” 하고 범수는 싱글벙글 웃는다.

“우리가 시방 공부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일 원 가진 놈이 일 원을 넣어 두라고 일 원을 다 주구 지갑을 사는 셈이야.” / “어째서?”

“지갑을 쓸데가 있어야지?” / “두었다가 돈 생기면 넣지?”

“그 두었다가가 문제여든…… 그 지갑에 돈이 또 생겨서 넣게 될 세상은 우리는 구경도 못 해…… 알겠수?”

“난 모를 소리요.”

“못 알아듣기도 괴이찮지…… 그렇지만 세상은 부자 사람허구 노동자의 세상이지, 그 중간에 있는 인간 들은 모다 허깨비야.”

…… 후략 ……

채만식, 『명일』

3.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범수가 비유한 ㉠과 ㉡의 원관념 해당하는 단어를 각각 쓰시오.

〈보 기〉	
㉠ 일 원	㉡ 돈지갑

4. 〈보기〉와 같이 윗글의 배경을 이해할 때, 범수가 자기와 같은 실업지식인 계층을 자조적으로 표현한 대상을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보 기〉
1920년대 이후 일제는 조선인을 포섭하기 위하여 교육을 장려하였지만 조선인들은 교육의 과정에서 수많은 차별과 불평등을 경험해야 했고 그 과정을 거쳐 고등교육까지 받은 경우에도 교육 수준에 부합하는 일자리를 구하기는 극히 어려웠다. 범수가 취직할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고 스스로 자조하게 된 이유도 이러한 시대적 맥락에서 찾을 수 있다.

# 수 학 영 역

1. 100 이하의 자연수  $a$ 에 대하여  $\left(\frac{1}{6}\right)^{\frac{3}{2}}$ 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a$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2.  $\sum_{k=1}^N k^2 = \sum_{k=1}^N 3k$ 일 때, 자연수  $N$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3.  $\pi < \theta < \frac{3}{2}\pi$  인  $\theta$ 에 대하여  $\frac{\sin \theta}{1 - \sin \theta} - \frac{\sin \theta}{1 + \sin \theta} = 2$ 일 때,  $\theta$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4. 함수

$$f(x) = \begin{cases} -3ax + a^2 & (x < 2) \\ 2x - a & (x \geq 2) \end{cases}$$

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 의 값의 합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 ■ 전형유형 및 전형방법

전형유형	모집단위	사정 방법	모집 인원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학생부 교과	면접 고사	실기 고사	서류	논술	계	
학생부 교과	학생부우수자전형	해당 모집단위	일괄합산	328명	100					100
	학교장추천전형	해당 모집단위	일괄합산	55명	100					100
	사회배려자전형	특수체육학	일괄합산	62명	100					100
	고른기회전형	해당 모집단위	일괄합산	63명	100					100
	체육실기전형	해당 모집단위	일괄합산	22명	60		40			100
학생부 종합	참인재전형	해당 모집단위	일괄합산	268명		30		70		100
논술	교과논술전형	해당 모집단위	일괄합산	265명	40				60	100

## ■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교과 및 반영비율

### 1. 학생부 반영교과

전형명	모집단위	반영교과	활용지표
전체전형	전체 모집단위	국어/영어/수학교과 중 6과목 + 사회/과학교과 중 3과목 총9과목	석차등급 (9등급)

### 2. 학생부 석차등급 환산표

석차등급	1	2	3	4	5	6	7	8	9
환산점수	100	99	98	97	96	95	94	80	50

## ■ 수능시험 반영 방법

### 1. 수능시험 영역별 반영 방법

모집단위	국 어	수 학	영 어	탐구(1과목)	활용지표
전체 모집단위	국어, 수학, 영어, 탐구(1과목) 중 우수영역 순서대로 50%+30%+20%				백분위점수

### 2. 영어 절대평가 반영방법

영어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변환백분위	100	95	90	85	80	70	60	50	40





글로벌 평화 리더 양성

**한신대학교**

---

위 18101 경기 오산시 한신대길 137 한신대학교

입학관리본부 전화 : 031-379-0107~9

팩스 : 031-372-6101

<홈페이지> <http://ent.hs.ac.kr>

---